일 주 문



대한언론인회 고문에

원행 평창 월정사 부주지 스님은 1월 18일 서울프레스센터서 열린 2018년 대한언론인회 정기총회서 고문으로 추대됐다.



대구불교총연합 이사장에

효광 대구 동화사 주지 스님은 1월 25일 대구 보현사서 열린 대구불교총연합회 정기총회서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입춘 삼재팔난 소멸기도

일관 남양주 봉선사 주지 스님은 2월 4일 오전 10시 봉선사 청풍루서 '무술년 입춘 삼재팔난 소멸기도'를 봉행한다.



본말사 합동 정초방생

정묵 예산 수덕사 주지 스님은 3월 7일 경기도 화성 용주사서 '수덕사 본·말사 합동 정초방생'을 실시한다.



파라미타 정기총회

심산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장 스님은 2월 10일 오후 4시 서울 불광사 교육관 회의실서 '2018년 파라미타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대불청 정기이사회

김성권 대한불교청년회장은 1월 27일 서울 견지동 전법회관서 2018년 제1차 정기이사회를 열고, 예·결산안을 심의했다.

인사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

〈교원보직〉

△공과대학장 김용 △건강증진센터장 홍승욱 △평가감사실장 안홍엽

〈법인 파견〉

△법인사무처 사업부장 서리 김성우

〈승진〉

△정보처 정보인프라팀장 최문규 △이과대학 교학팀장 이연주

〈전보〉

△관리처 BMC관리팀장 겸 고양학사 행정팀장 신기훈 △연구처 연구관리팀장 김해덕 △미래캠퍼스 개발추진본부 중·후문일대개발추진단장 강형석 △약학대학 교학팀장 송민수 △영상대학원 교학팀장 겸 영상문화콘텐츠연구원 행정팀장 김정대 △중앙도서관 학술정보서비스팀장 박희동 △중앙도서관 학술정보관리팀장 윤주영 **이상 1월 23일자**

"21세기 문화포교로 佛國土 꿈 실현을"

Interview

창립 25주년 신라문화원 진병길 원장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불교문화 활용 70명 일자리 창출

황룡원, 경주남산 성지탐방 계획

불교문화콘텐츠 제작자 초청도

"현대산업문명이 발달하면서 전통문화의 가치가 강조되고, 전통문화의 3분의2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불교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문화포교로 현대사회에서 불국토의 꿈을 실현하겠습니다."

1993년 3월 개원한 (사)신라문화원이 개원 25주년을 맞아 문화포교 행사를 다채롭게 연다. 3월 기념식을 앞두고 만난 진병길 신라문화원장〈사진〉은 문화포교에 불교 대중화의 방향이 있음을 역설했다.

진 원장은 "불교를 모르고는 우리의 문화, 역사, 전통에 대해 제대로 알 수 없기 때문에 문화를 통한 대중포교는 불교를 자연스럽게 현대인에게 알려주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신라문화원은 불교대중화를 위해 큰스님 초청법회, 불교대학, 충담재, 원효예술제 등을 진행하고 소외계층 아동을 위한 사회공헌,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이와 함께 불교교육 프로그램으로 조계종 승려연수, 남산불적답사, 불교문화강좌 등도 진행해 왔으며, 불교문화재 보존활동으로 경주 남산청정운동, 불교문화재 지킴이활동, 불교문화재 활용사업으로 신라달빛기행, 폐사지음악회, 추억의 경주 수학여행 등을 전개해왔다.

진 원장은 "불교민간단체라는 어려움 속에서 25년간 불교 대중화에 나섰다. 최근에는 서악마을 가꾸기 등 마을공동체 상생사업까지 체계적인 대중포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문화재돌봄사업을 통해 불교문화재도 가꾸면서 모두 70여 명의 일자리까지 창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진 원장은 "신라문화원이 올해로 약관을 넘겨 25주년을 맞이하는 만큼 더욱 대중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불교문화재의 창의적인 활용을 모색할 계획"이라며 "불교문화의 본향인 경주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자연스럽게 불교문화재를 만나면서 불교에 대한 이해와 친근감을 얻고 불교와 좋은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누구보다 앞장서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불교문화재와 사찰이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황룡원, 중도타워와 경주 남산 등 불교성지탐방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사업이 진행된다. 또 대불련 출신인 진모영 감독 초청 '올드마린보이' 다큐멘터리 영화의 시민상영에 이어 경주지역 스님들을 대상으로 상영회도 열린다.

진 원장은 "최근 불교문화를 활용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불교문화콘텐츠를 개발하는 활동가들이 많아질 때 불교대중화가 꽃을 피울 수 있다. 이들을 장려하기 위해 초청행사 등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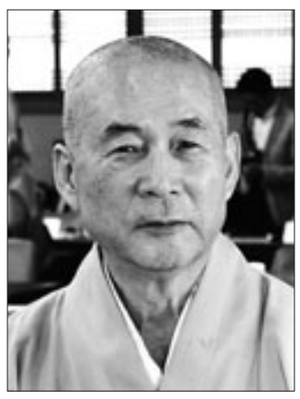
진 원장은 끝으로 "충담 스님이 향가 안민가에서 설파하신 '답게'처럼 스님은 스님답게, 신도는 신도답게, 불교문화단체는 불교문화단체에 맞게 문화를 통한 불교대중화 활동에 적극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진병길 신라문화원장은 2002년 제17회 불이상 대상 실천분야, 2005년 제2회 대한민국 문화유산상 대통령상, 2011년 한국관광공사 주최 한국관광의별, 2016년 문화재청 문화유산보호 유공자 대통령 표창 등을 받았다.

태고종 보타락가사 '반야계단' 개설

3월 31일 수계대법회 봉행

"수계는 불제자의 계율 서약"



"수계는 불교에서 재가신도나 출가 수행승의 구별 없이 부처님 가르침을 받는 자가 지켜야 할 계율에 대한 서약입니다. 이는 일정한 의식이 필요한데 그것을 수계의식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계를 주는 수계사(授戒師), 계단에 대한 여러 가지 작법을 가르치는 교수사(敎授師), 그 작법을 실행하는 갈마사(羯磨師)의 3사와 그 자리에 입회해 그의 수계를 입증하는 7명의 증인(三師七證)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 작법은 일백삼갈마(一白三羯磨), 즉 갈마사가 참석한 대중에게 수계 희망자의 뜻을 말하고, 그들의 승인을 세 번 묻는 의식입니다. 이를 백사갈마(白四羯磨)라고도 합니다."

충남 태안에 위치한 태고종 보타락가사 회주 법진 스님〈사진〉은 신체적 결함과 나이 등 제반 여건에 부합돼 수계식을 못하는 불자들을 위해 '반야계단'을 개설하겠다고 1월 24일 밝혔다.

법진 스님은 "불교 전통 의식에 맞춰 여법하게 펼쳐질 이번 법회는 종단과 승속 등을 초월해 불제자가 되고자 하는 이들에게 생사윤회를 벗어나 해탈을 성취하는 지름길이 되고, 성불의 계단을 오르는 사다리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며 "거룩한 계를 받는 것은 천년 동안 어두웠던 방안에 자비 광명의 등불을 밝히는 것으로, 계를 받은 이들의 삶은 부처님의 가피로 충만할 것"이라고 말했다.

3월 31일 태안 보타락가사 대웅전서 펼쳐질 이번 행사는 오전 11시 수계대법회에 이어, 오후 2시부터는 수계식이 봉행될 예정이다. (041)672-1550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정오 스님, 동국대에 1억 원 쾌척

"비구니 기숙사 혜광원 재건립에 써달라"



동국대 재학 중인 비구니 스님 기숙사인 혜광원 재건립 불사를 위한 기금이 답지됐다.

동국대(총장 보광)는 "1월 18일 보현정사 회주 정오 스님〈사진 오른쪽〉이 동국대를 찾아 혜광원 기금 1억 원을 기부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기금 전달식에는 동국대 이사장 자광 스님, 총장 보광 스님을 비롯해 정각원장 묘주 스님, 대외협력처장 종호 스님, 보현정사 회주 정오 스님, 보현정사 주지 혜진 스님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기부에 앞서 정오 스님은 "비구니 스님들의 기숙사인 혜광원 시설이 노후하다는 얘길 들었다. 비구니 스님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수행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돕고 싶어 기부를 결심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에 자광 스님은 "어려운 사중살림에도 불구하고 종립학교 발전을 위해 큰마음을 내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보광 스님은 "혜광원 재건립은 비구니 스님들이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학업에 정진하게 된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공부하는 스님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번 기부금은 비구니스님들의 기숙사인 혜광원의 재건립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동국대-한국열린사이버대 MOU

18일 협약식… 정보교류, 공동연구 등 협력



동국대(총장 보광)와 한국열린사이버대(총장 장일홍)가 인재양성을 위해 힘을 모은다.

동국대 법무대학원(원장 한희원)은 1월 18일 동국대 서울캠퍼스에서 한국열린사이버대와 우수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협약을 통해 학위과정 교육, 정보교류, 공동연구 등 관련사항에 긴밀히 협력키로 했다.

한희원 동국대 법무대학원장은 "동국대 법무대학원은 공동체 사회의 총체적인 법률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융·복합형 법률가 양성을 위해 산학협력 등 다방면으로 힘쓰고 있다"며 "한국열린사이버대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현대사회가 필요로 하는 법률인재와 민주시민 육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제4기 보경사 염불대학원
불교의식·범음범패 수강생 모집

보경사 염불대학원에서는
각단 불교의식 및 범음범패를
봉양할 수 있도록 지도해 드립니다

- 교육과정 -

각단 불교의식 및 범음범패 1년 과정

- 도량석, 종송, 향수혜례, 삼보통청, 중단퇴공 각단불교의식, 관음청, 지장청, 중청, 시달림, 방생의식, 상용영반, 구병의식, 신중39위작법, 관음시식, 바라, 화청
- 사물 : 북, 태징, 목탁, 요령

※ 1년과정 이수 후 품수증, 법사증 수여(숙식제공가능)

⇨ 모집대상 : 스님, 출가예정자, 재가자
⇨ 제출서류 : 수강신청서 (본 교육원에서 교부) ····· 1부
반명함판 사진 ····· 1매
⇨ 예비소집 : 2018년 2월 27일 (화요일, 오후 2시)
⇨ 입 교 식 : 2018년 3월 6일 (화요일, 오후 2시)
⇨ 수 업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5시 (설법전)
⇨ 준 비 물 : 목탁, 요령 (교재 - 입교식시 배부)
⇨ 문 의 : 교육원 강주(일관스님) 010-9361-5556
보경사 염불대학원 학생처장 010-4530-7444
- 주소 : 경북 포항시 북구 송라면 보경로 523

대한불교조계종 11교구 보경사 선원장 철산 합장

출강 및 통신 2018학년도 제27기 법사학인 신입생 모집

법사 교육 신입생 모집

탁월한 불교교육과 정명한 법사자격을 원하십니까?

◆ 한국불교법사대학.대학원은 정통한 법사교육으로 27년의 전통과 신뢰로서 자랑과 긍지를 삼고 있습니다.

①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총연합회,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에서 인증하는 법사자격 법위증이 수여됩니다.
② 불교학 전공 저명한 교수진으로 강의 진행됩니다.
③ 불교를 쉽게 이해 정립되도록 지도 교육합니다.
④ 불교기본의식을 실습 지도합니다.
⑤ 법사품수 후 사찰·포교원 등록시 행정상 보호받도록 지원합니다.

"불교법사 양성 전문교육(1년제)"

모집과정	· 법사과정(1년) · 대법사과정(2년) · 불학연구원과정(5년) · 불교석학과정(2년)
모집학반	· 출강반 · 통신반
입학자격	· 불심이 돈독한 분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교육수료 후 법사로서 포교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 원서 교부 및 접수 : 2018년 2월 28일까지 (현재 접수중)
♣ 원서 교부 및 접수처 : 본 대학 교무처(방문·우편·팩스·메일) 제주교육원 (☎ 064-751-1959)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집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02)733-1959 720-1836

깨달음의 법(法)·전법하는 사(師)
한국불교법사대학.대학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3 (견지동, 한선빌딩 3층)
http://pubsa.buddhism.org FAX : 02)737-5305